

칭찬은 선생님도 춤추게 한다

정 승 료 / 동명여자중학교 / britz04@hanmail.net

학교에서 나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선생님이로 기억될까?
아이들의 인생에 내가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것들을 가끔 생각해본다. 교사 3년차인 나는 아직은 익숙한 것보다 배울 게 더 많다. 가르치는 것도 교과서 내용 전달만으로도 숨 가쁜 수준이고, 진도 걱정하느라 수업시간에 재밌는 얘기 한 토막도 할 여유도 없다.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쑥스럽기도 하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몇몇 기억 때문에 아이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애쓴다.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이로 비춰지는지 아직 모르겠다. 아니, 알고 싶지만 아이들로부터의 평가가 두렵다. 아마도 스스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새삼 아이들 앞에서 무안당하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학급을 관리하는 것 외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답답해지곤 했다.

이런 내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첫 해 한달을 빼고는 늘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내게는 버거운 일이었다. 조회, 종례 시간에 몇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기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같았고 학기 초의 신상조사와 같은 지루한 상담에 나 자신이 먼저 질려버렸기 때문이다. 시춘기 반항심에 갑자기 변해버린 아이의 어머니

가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아이를 좀 다독겨려주십사 부탁하고 가시면 긴 시간 아이를 붙잡고 내가 듣기에 너무도 흔해빠지고 뻔한 '잔소리' 를 할 뿐이고, 말이 대화지 내가 혼자 떠들다 끝나버리고 만다.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에 흥미를 잃어가는 아이를 불러서 형식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하고는 1학기 중간고사의 성적표부터 좌악 펼쳐놓고 점수를 짚어가면서 잡다한 공부 방법들을 늘어놓고 평균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어려운 가정형편의 학생에게 마음이 쓰이기는 하지만 실상 그 아이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형식적인 위로와 조언을 해주는데 그치는 나의 모습이 무력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아이들과 3년을 지내면서 어느 것 하나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다. 어떤 선생님처럼 아이들이 냇을 놓고 들을 만큼 재밌는 열강을 할 능력도 없고 아이들이 힘들면 기댈 수 있을 만큼 교감을 나누고 있지도 못한 나를 보면서 나의 교사로서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에 주눅이 들곤 했다. 나는 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내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일주일 전부터는 학교 생활이 즐겁다. 잘해보자는 의욕이 다시 꿈틀거린다. 나도 잘 하는 것이 있다고 칭찬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이들로부터.

도덕시간에 도덕선생님께서 '우리 담임선생님의 장점 20가지 찾아보기' 를 하셨단다. 그런데 우리 반에서 재밌는 칭찬들이 나왔다면 이런 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다. 원래 담임선생님께는 보여주지 않겠다고,

나중에 아이들이 담임선생님께 직접 읽어주기로 했다고 하셨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한번 읽어보게 해달라고 했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어떤 담임선생님일까? 나의 장점을 몇 개나 썼을까? 꼭 채운 종이보다 반도 못 채운 종이가 더 많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받아 본 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몇 개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솔직하다

한번도 인사를 무시하신 적이 없다

선생님은 스타킹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보아서 완벽 한 사람이 아니라 좋다

누구든 다 평등하게 대해주셔서

고민을 털어 놓을 만큼 편해서

이해가 안가는 질문을 여러 번 물어도 짜증내지 않으신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다

...

내가 노력했던 점을 칭찬해준 것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칭찬도 있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보다 나의 생활습관, 일상적인 모습들에 대한 칭찬일 때,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나에게도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하고 더욱 기뻐했다. 아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절로 신이 났다. '질문에 더 잘 대답해줘야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

나.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해야지....'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아이들도 작은 관심과 일상적인 한마디에 학교생활을 다르게 느끼지 않을까?' '내가 아이들을 바꿔준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아이들에 의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업무의 연장'으로 파악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아이들이 나를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실은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나의 욕심이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냥 작은 칭찬 한마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아이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서로 아는 척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충분히 의미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즐거운 학교 속에 좋은 선생님도 좋은 친구도 있을 것이다.

교직 3년 동안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조바심내고 있었던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하룻밤에 키가 몇 센티미터씩 자라는 아이들이지만 그 내적인 성장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교사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칭찬받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한다. 스타킹에 구멍은 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면서

